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3.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 삶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속의 바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하늘 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드리운 먹장구름을 찢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무력하기에 목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18. 시편67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함께

성경봉독 I. 마7:7-11 인도자

II. 왕하7:3-7 박애순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기도는 습관이다 김재흥 목사

II. 희망의 뿌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 헌신의 찬송 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 헌금봉헌<성가대 복사중창단>..... 다함께
-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우리의 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선한 생각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후원자 축제	에베소서 강해(25)/김기석 목사
진행 : 김인걸 권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안 훈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이호원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진	박재실	박효선	고속이	박경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훈동	김필순	송양진	박홍재

산으로 오르라

소인한거위불선[小人閑居爲不善: 소인은 한가하게 거하면 좋지 않은 일을 행한다]이라고 하였으나 신자는 조용히 살거나 또는 고독해야만 지조가 맑아지고, 소망이 원대하여지며, 선을 행하는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보라, 문화인들의 빈번한 모임과 회합을. 불신 사회의 무도회와 연회석상 및 영화관에서 정결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소위 경건한 무리들의 회합도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사고로 생명을 삼는 기독교청년회 안에 적극 신앙단이 보금자리를 틀고 들어앉은 것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오늘날의 노회총회와 그 밖의 종교인들의 대소 회합,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며 우리의 지조가 청정해짐을 기대할 수 있으랴.

사교적 동물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받은 인간들은 사교 또 사교요, 회합에 힘쓰는 때에 무시로 균중을 피할 뿐 아니라 가장 친근히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물리치고 산으로 바다로 사막으로 피한 분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러하다. 예수는 세례 후 성령을 넘치게 받았을 때 광야로 달음질하였고, 허다한 균중에게 설교하고 병을 고쳐 주셨을 때 황무지에 거처하였으며,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고는 바다로 피하였고, 떡 먹는 5천 명 대중이 왕으로 추대코자 하면 기도하고자 산으로 오르셨으며, 최후 십자가의 시련을 당하여는 겿세마네 동산에 숨어 기도하셨다. 예수는 홀로 거할 때에 모든 능력이 주입되었던 것이다. 용마가 솟아 튀기 전에 반드시 뒷걸음질하듯이, 전기 기계를 사용한 후에 다시 충전하듯이, 전투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 반드시 홀로 조용한 곳에 피하신 것이 예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었다.

인간 세상의 고뇌에 피곤한 형제여, 헛된 사교에서 환희를 만끽할 수 없는 신세를 한탄치 말고, 누워 있는 병상과 한숨 쉬는 그 가난에서 깊이 고독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높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크게 능력의 실질을 파악하라. 병과 가난은 산이 아닌가. 교우의 냉대를 한탄하는 이와 세상의 순풍을 자랑하는 이나, 학식의 뛰어난을 자궁하는 이와 신앙의

영능을 확신하는 이나 다같이 산을 향하고 산을 오르라. 신자는 산에서 조용히 거할 때에 저의 영혼에 방부제를 뿌리는 것이며, 영생의 보약을 마시는 것이다. 저의 마음에서 시·공간에 제한된 모든 번뇌가 그림자를 감추고 영원 무궁한 우주적인 큰 문제만이 남게 되며, 모든 사람의 지혜와 확신, 특히 현세의 헛된 영광을 폐휴지같이 버리는 결단이 생긴다. 또한 최후의 적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을 이기신 주 그리스도의 태도까지 닮을 수 있으며, 과연 다시 살리움을 받을 수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시편121편)라고 우리도 노래할 것이다. 먼저 산으로 오르라.(1936년 6월)

성도의 자격

성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聖徒)라고 부른다. 성현 군자라는 동양적 사상에 습관이 된 우리들은 성(聖)이라는 관념과 기독교 신자들의 현상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큰 것을 보고서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는 신도들을 조소하기 쉽고, 또한 자기 스스로 성도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성서에 성도라고 일컬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성현(聖賢)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죄인의 과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별을 입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속죄함을 얻은 사람이면 가하다. 그러한 성도에게 단 한 가지 요구되는 자격이 있으니 그것은 ‘신실’하라는 것이다. 신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만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되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골1:2)라고 하였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하지 않았고, 성도는 웅변가라거나 문장가라거나 예술적 천재라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성도가 곧 부자라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성도란 것을 무슨 비범한 천재를 가진 자라거나, 또는 도덕적 완전이나 물질적 부요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했다면 어쩔 뻔하였으랴. 그러나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 함은 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우리 범부(凡夫)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 (1939년 2월)

노염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표면적으로 노염을 표현하는 것을 삼갈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노여워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입을 통제하여 성난 말을 삼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원한을 깨끗이 제거하고 형제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편이 더 유익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노염의 뿌리를 뽑아 버린다면, 더 이상 증오나 시기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요일3:15).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칼에 찢려 살해된 사람의 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미움에 찢려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에 따라 상이나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공적을 판단하실 것이다”(집회서35:22)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2:15-16)고 말합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마5:22)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유 없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염의 뿌리, 그 불꽃을 제거해야 하며, 마음속에 노염에 대한 핑계를 하나도 간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이유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곧 자신의 노염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토스 성산의 성 니코디모스, <<필로칼리아1>>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래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구명자 이광용 형인순 이인웅 이봉옥 조문규 진정숙 이정규 이인섭
박영희 김종훈 안경숙 김희진 박홍재 장영숙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문금석 정두리 이정은 김종문 지명주 김윤정 김창경
이증자 박순희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구명자 김애경 박영균 최호정 김현진 김제우
임영호 박순희 김용길 최영혜 윤 윤 윤예운

생일감사헌금: 김재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차 혜 심	최 희 영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박 홍 업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진 경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박 경 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이 봉 옥
빌 린 보	구 성 실	박 현 우	박 현 우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이 영 옥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명 희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2,4 여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후원자 축제** : 오늘 오후 집회는 후원자 축제로 모입니다. 우리가 교우들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작은 음악회도 열립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인사구역회** : 감리사님을 모시고 오늘 오후 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인사구역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십시오.
4. **보고** : 각 부서와 선교회의 금년도 활동사항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5. **세례·입교신청** : 오는 성탄절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주십시오. 아동세례는 5살까지 가능합니다.
6. **별세** : 박애순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박영한 집사님께서 9일 별세하시어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7. **신앙실천** :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 운명이 됩니다. 하루에 찬송가를 3장 이상씩 부르십시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헌화 : 조병무 장로 송양진 권사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